제4강 몰아의 경지로 삶을 기르다

◆ 1교시 <제물론> ① - 존재에 대하여

▲ 제물론 해제 - 만물평등론

이번에는 짧게 마무리를 하죠. 첫 번째 이야기 하나가 다 끝나지가 않는데 양은 이렇게 많아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물론」. 제가 제목을 가지런한 만물의 이야기,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실제로 이 「제물론」 속에 시비(是非)와 피아(彼我)와 그리고 또 미추(美醜)와 고하(高下) 등등 온갖 차별(差別)이 실제로는 상대적인 것이다. **결정적으로 아름답고 결정적으로 추하고 결정적으로 옳고 그르고 저와 나, 이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는 간단해요. 비피(非彼)면 무아(無我)라. 그러니까 「제물론」 본문 속에 나오는데요. 다 하나하나 읽을 수는 없으니까 잘라서 보는 거죠. 저가 아니면 나 또한 없다. 부자(父子)가 그러잖아요. 부자라는 건 아버지 단독으론 성립할 수 없는 거죠. 피(彼)와 아(我)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나라고 내가 구분을 하지만 저 입장에서 보면 내가 저고 지가 아(我)다 이거에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피와 아라고 하는 게 구분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원래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시비도 마찬가집니다. 각자 자기가 옳고 그르다는 얘기를 한다. 그리고 상대가 그르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옳다고 하고 상대가 옳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그르다고 한다.

미추도 마찬가지다. 모장이나 여희나. 여희는 리희라고 읽어야 되는데 일단 여희라고 치고요. 여희라는 미녀는 진나라 헌공의 후처인 셈인데 그 여희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의 대명사입니다. 모장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하지만 모장이나 여희가 연못가에 가면 물고기들은 깊이 헤엄쳐서 숨고 그리고 또 새들은 높이 날아서 도망간다. 사람에게나 이쁘지 물고기나 새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다른 말을 쓰기도 하죠. 침어낙안(沈魚落雁)해서. 침어낙안이라는 것은 좀 다른 의밉니다. 장자와는 반대의 이야기에요. 워낙 아름답기 때문에 헤엄치던 물고기가 물에 빠지는 거고, 또 날아가던 새가 워낙 아름다워서 떨어지는 겁니다. 어 아름다워 그래서 떨어지는 건데 장자가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물고기들은 모장이나 여희 같은 미녀가 와도 무서우니까 숨어버리고 새는 높이 멀리 날아서 도망쳐 버린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미추라고 하는 것도 다르다. 그리고 또 사람은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면 벌벌 떠는데 원숭

www.artnstudy.com

이도 그러한가. 원숭이는 오히려 높은 나무 위에 있는 걸 아주 편안하게 여긴다. 그런 것처럼 이런 **시비니 아름다움이니 추함이니 이런 것들은 전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제물론」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단순히 상대적인 것이다, 얘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들이 다 평등(平等)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등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제물론」입니다.

너무나 다양한 사물들의 모습을 다 그 하나하나가 가치를 지닌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물론」에서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어려운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자』 뒤쪽 외편이나 잡편에 보면 하나하나를 우화로 만들어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제물론」도 우화는 우화지만 철학 우화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개념을 가지고 또 개념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개념을 이야기할 때 일상용어를 가지고 설명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개념을 또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개념 훈련이 안되어 있으면 어렵거든요. 「제물론」은 아주 아름답지만. 왕안중 같은 사람은 『장자』 「제물론」을 펼치면 바람소리가 윙윙 들린다고 했거든요. 그만큼 실감나는 표현이 나와 있지만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뒤의 외편, 잡편과 연결시키면 이를 테면 동곽자(東郭子)가 장자에게 물어요. 도가 어디에 있는가? 장자 얘기가 저 기왓장 뒤에 있다. 어찌 그리 형편없는 곳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똥과 오줌 속에 있다고 그러죠. 젤 첨에 어디에 있느냐. 저 풀 속에 있다 이러다가요, 그 다음에 어찌 그리 형편없는 곳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왓장에 있어 그러다가 어찌 더 내려갑니까 그러니까 저 똥이나 오줌 속에 있다 그러니까 동곽자가 화가 나서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장자가 동곽자에게 설명을 합니다. 도는 어디에나 있다. 그 각자 하나하나의 것들이 모두 다 가치를 지니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우화를 통해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데 **일단 「제물론」은 그런 식의 우화보다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가 독서를 할 때는 독서가 일종의 도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운 걸 기어코 한 번 읽어보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긴 작품도 한 번 읽어보고 아주 어려운 것도 한 번 읽어보고 누가 이기나 읽어 보기도 하고요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 게 일종의 도전인데 오늘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 남곽자기와 안성자유 이야기 - 인뢰(人籟), 지뢰(地籟), 천뢰(天籟)

앞에 제물론이 있고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오죠.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한 번 보겠습니다. 번역된 이야기를 한 번 보면서 보죠. 남곽자기(南郭子綦)가 자리에 기대 앉아. 남곽자기도 사실 이제 번역을 할 때 이것까지 다 번역해 버리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아요.

www.artnstudy.com

다석 유영모라는 사상가가 있는데 그 양반이 『노자』를 번역했는데 『노자』의 제목이 '늘그늬'던가 하여튼 표기는 제가 정확치 않은데 늙은이에요. 노자(老子)라는 건 고유명사 아닙니까. 고유명사를 어떻게 번역해요? 그런데 그걸 번역을 해버렸어요. 너무나 통쾌하죠. 그리고 그 내용을 전부 우리말로 쫙 풀어버렸는데 문제는 우리말이 더 어렵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학자들이 막 비판했어요. 그거 가지고 비판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높이 평가하는데 장자 전공자가 비평을 하면서 우리말이라고 하는 게 알아듣는 우리말이라야지… 더 알아듣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 우리말로 푼다고 하면서 시도는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근데 시도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제가 이쪽 분야를 한동안 붙잡고 정리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연도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유영모라는 양반은 89년에 돌아가셨던가 그래요. 함석헌 선생의 선생님입니다. 함석헌 선생의 스승이에요. 이거면 대충 알 만 하시겠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죽었냐 하면 톨스토이처럼 죽겠다고 해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폐렴 걸리고 이래서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책 읽다가 감동 받으면 그대로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주 어린 시절에 느꼈던 거 아닙니까? 아주 어린 시절엔 제 기억에도 예를 들어 톰 소여의 모험 이런 걸 읽으면 물물교환 같은 거 했거든요. 우리 형이 유치하다고 해서 제가 바로 깨지고 말았는데 하여튼 그때 제 생각에는 그거 읽으면 그대로 해보고 그런 걸 가졌어요. 우리 형은 그걸 일찍 잊어버렸어요. 저한테 꿀밤 주고 그랬는데 일찍 잊어버려 갖고 지금까지 공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그대로 갖고 있는 양반이에요. 너무나 그러니까 뭐랄까요. 톨스토이 읽으면 톨스토이처럼 바로 실행에 옮기는 양반이거든요.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어지는데 하여튼 『노자』를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 고유명사까지 번역하려고 시도했다, 이걸 대단히 높이 평가하는데.

남곽자기(南郭子綦)도 마찬가집니다. **남곽(南郭)**이라고 하는 건 이 곽(郭)은요 성곽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렇게 쓰면(廓) 확도 되었다 곽도 됩니다만 성곽이에요. 그래서 곽의 남쪽에 사는 현자, 자기(子綦). 이 기(綦)도 이 기(基)와 같습니다. 기, 터전, 근거, 근원, 이런 뜻입니다. 뭔 근원이냐. 삶의 근원을 안다 이거에요. 근원적인 삶의 문제를 아는 선생이다 이거에요. 자(子)는 존칭이니까요. 뒤에 붙여서 존칭으로 쓰기도 하고 자(字)를 쓸 때. 명 말고 본명이 있고 별자가 있지요. 본명은 중시하기 때문에 쓰지 않고 별자를 씁니다. 별명을 쓰는데 그 별명의 앞쪽에 아들 자 자를 높여서 상대를 높입니다. 자를 쓰기만 해도 상대를 높이는 거예요.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자기 할아버지 공자를 높인 게 중닙니다. 중니가 자거든요.
어쨌든 그 **근원을 아는 현잔데 성곽 남쪽에 사는** 겁니다. 원래 귀족들만 성안에 살아요. 물론 성안에도 평민이 사는 특수한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고구려 같은 경우가 그랬다고 하는데 본래 성안에 살면 귀족이고 성밖에 살면 평민 또는 하층민인데 그것도 동서남북이 있어

www.artnstudy.com

요. 그 중에서 제일 하층민이 남쪽입니다. 북쪽이 제일 세력가들이 사는 데고요. 한양도 그렇죠. 북촌 한옥 마을. 세력가들이 다 거기 살았어요. 남쪽. 남산 회현동, 그쪽. 거기가 빈한한 가문 쪽입니다. 물론 거기서도 인재가 나왔죠. 유성룡도 나왔고, 이순신도 인현동. 거기도 남쪽 회현동(會賢洞) 쪽이거든요. 회현동, 어진 사람들이 모였다, 이런 뜻으로 쓰잖아요. 거기서 현자가 나온 거예요. 인현동(仁峴洞)도 마찬가지죠.
가장 세력이 약한 남쪽에 사는 천민(賤民)입니다. 아마 직업이 「양생주」를 기준으로 하면 백정(白丁)쯤 되었을까나요. 소 잡는 사람이나 개 잡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백정이라고 하는 거는 인정(人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인정이라고 하는 거는 전쟁이 일어나면 징발해 가는 사람, 그게 정입니다. 장정을 의미해요. 의무를 지죠. 그만큼 권리도 가집니다. 백정은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권리도 없죠. 그래서 천민입니다.

그 사람이 뭘 아느냐. 삶의 근원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이게 장자의 출발이죠. 그리고 그 남곽자기의 제자가 누구냐면 안성자유(顔成子游)입니다. 안성자유는 안(顔) 자를 편안할 안(安) 자로 바꾸고 성(成)을 성(城) 자로 바꾸면 성안에서 편안히 사는 귀족입니다. 귀족이 게다가 자유에요. 자유는 공자의 제자 중에서 문학으로 이름을 날린 잔데 여기서 남곽자기의 제자인 거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패러디죠. 자유가 가서 묻습니다, 남곽자기에게. 삶이란 무엇입니까. 배우는 과정 속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죠.
일단 등장인물 자체가 아까 구작자니 장오자니 표현한 게 나오는데 커다란 오동나무가 이렇게 말했다. 구작자가 깜짝깜짝 놀라는 참새 같은 자, 경망스러움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걸 다 우리말로 싹 다 번역해서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아직은 제가 내공이 그 정도는 안 되네요. 그냥 남곽자기로 일단 만족하고요.

남곽자기가 자리에, 안석에 기대앉아서 하늘을 우러러 보며 한숨을 쉬는데 멍하니 자기 짝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뭐냐 하면 **정신이 있고 몸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내가 나를 잃어버렸다. 오상아(吾喪我)**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뒤에. 지금 오(吾), 나는, 상아(喪我), 나를 잃어버렸다. 내가 나를 잃어버렸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자기상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내가 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나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아주 이상한 정신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도의 세계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한 곳에 **몰입을 했을 때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백정이 소를 잡을 때도 망아의 경지로 들어갑니다. 망아의 경지로 들어갔다가 다시 일상세계로 돌아올 때 화들짝 놀라는 모습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자기 짝을 잃어버린 거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계속이요. 제자 안성자유가 앞에서 모시고 서 있다가 이렇게 물었어. 어찌된 일입니까? 묻는 거죠. 사람의 몸뚱이는 정말 나무처럼 시들 수 있고 시든 나무처럼 될 수 있고 마음은

www.artnstudy.com

정말 불 꺼진 재와 같아질 수 있는 겁니까? 생기라곤 없는. 지금 자리에 기대계신 분은 예전에 기대계시던 분과 다른 듯합니다. 원래의 선생님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곽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아 훌륭하구나. 마침 네가 그걸 묻다니. 지금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렸는데 너는 그것을 눈치챘느냐. 그리고 음악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사람의 음악은 들었어도 아직 땅의 음악은 듣지 못했을 거고 땅의 음악은 들었어도 하늘의 음악은 듣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인뢰(人籟), 지뢰(地籟), 천뢰(天籟)를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안성자유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안성자유가 이렇게 말했어. 감히 무슨 뜻인지 묻습니다. 남곽자기가 이렇게 대답했어. 그리고 나오는 문장인데요, 이게 정말 수많은 명문의 근원이 되는 문장입니다. 보죠.

"커다란 땅덩어리가 숨을 내쉬면 그걸 **바람**이라고 해. 이 바람은 불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조용하지만, 일단 불기 시작하면 온갖 구멍이 울부짖기 마련이지. 너도 긴 바람소리를 들어봤겠지? 높고 험한 산, 깊은 숲 속에서 둘레가 백 아름이나 되는 큰 나무에는 수많은 구멍이 있어. 어떤 것은 콧구멍 같고, 어떤 것은 입 같고, 어떤 것은 귀 같고, 어떤 것은 가로지르는 나무 같고, 어떤 것은 나무 그릇 같고, 어떤 것은 절구통 같고, 어떤 것은 깊은 웅덩이 같고, 어떤 것은 얕은 웅덩이 같지. 그런데 그 구멍에서 물이 세차게 흐르는 듯한 소리, 화살이 나는 듯한 소리, 꾸짖는 듯한 소리, 헉헉 들이마시는 듯한 소리, 외치는 소리. 볼멘소리, 웃는 소리, 아양 떠는 소리가 나지. 앞의 바람이 웅웅 소리를 내면 뒤따르는 바람이 윙윙 소리를 내는데 산들 바람이 불면 작은 소리로 대꾸하고 세찬 회오리바람이 불면 큰 소리로 대답을 하다가 기어코 사나운 바람이 그치면 모든 구멍이 텅 비게 되지. 너도 바람이 한바탕 지나간 뒤에 나뭇가지들이 흔들거리고 살랑거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겠지."

안성자유가 이렇게 말했어. 땅의 음악은 뭇 구멍에서 나는 소리고 사람의 음악은 대피리를 불 때 나오는 소리인 줄은 알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감히 여쭙습니다. 하늘의 음악이란 무엇을 말하는지요. 인뢰는 악기로 연주하는 거고 지뢰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다채로운 표현이 나온 땅의 음악, 나무 구멍에서 바람이 불 때, 꼭 나무 구멍만은 아니겠죠. 바람이 불 때 생기는 음악이다. 그렇다면 하늘의 음악이란 무엇을 말하는지요?
남곽자기는 이렇게 대답했어. 불어대는 소리는 만 가지로 다르지만 각자 자신의 구멍에서 나온 게지. 모두 스스로 소리를 낸다는 말이야. 그렇다면 세찬 소리를 내게 하는 게 누구일까?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노자기수야(怒者其誰邪)**요. 그 소리를 내게 하는 것은 누구일까? 인뢰도 아니고 지뢰도 아닌데 바로 그런 소리를 나게 하는 건 누구냐 이거에요. **소리 없는 음악.**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계속 이어봅니다. 큰 지혜는 한가하지만 작은 지혜는 꼬치꼬치 따지기나 하지. 큰 소리는 소리가 없고 작은 소리는 시끄럽다 이거에

www.artnstudy.com

요. 커다란 말은 담담하지만 잔소리는 시끄럽기만 해. 커다란 말은 담백하다 이거에요. 잔소리는 내용이 많고 복잡하다 이거에요. 뒤에 보면 저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사람의 사귐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군자지교(君子之交)는, 이건 외편에 나오는 이야긴데, 군자의 사귐은 담약수(湛若水)하고 담(湛)은 담담하다는 뜻입니다. 이 담은 이렇게도 씁니다. 묽을 담(淡)자. 묽기가 물과 같고 소인지교(小人之交)는, 소인의 가르침은, 감약례(甘若醴)라. 달기가 마치 술과 같다.

명나라 때 담감천(湛甘泉)이란 사람은요 이름이 담약숩니다. 『장자』에서 빼서 담약수라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명나라 때 양명학자고요, 청나라 때 장지동(張之洞)도 『장자』에서 이름을 땄어요. 장지동정지야(張之洞庭之野)라고 해서 동정의 들판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게 장지동정지야해서 쭉 나오는 『장자』 구분 중에서 장지동이라는 이름을 따온 게 청나라 학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문장가 이덕무는 덕무가 『서경』에서 따온 거고 그래요. 이름만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박제가는 자가 숙이고 이름이 제가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이름을 바꾼 거거든요. 『대학』의 구절을 따가지고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 딱 보면 어떻다 나오죠. 정약용은 『서경』에서 나왔는데 약금(若金)이거든요. 약금이라고 『서경』에 나오는데 거기다(金) 이거(庸) 붙여 정약용(丁若鏞)이고. 여기다(金) 이거(全) 붙여서 정약전(丁若銓) 만들고 이거(玄) 붙여서 정약현 만들고(丁若鉉). 『서경』에는 이것만 나오죠. 쇠붙이가 돼라. 큰 종이 돼라. 큰 솥이 돼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름이 좋아서 이름값 다 했죠, 이쪽은. 그런가 하면 거천이다. 이름이 좋다고 반드시 좋은 건 아니고 이루지 못한 경우가 사실 더 많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어쨌든 사귐 자체가 군자는 아주 담담함을 추구한다. 화려하거나 이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인뢰가 있고 지뢰가 있고 천뢰가 있는데 그 천뢰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이걸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실마리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마리로 삼을 수 있는데 학자들마다 견해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천뢰가 있는 거다. 뭔가 있어서 그렇게 만들게 하는 존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 없다 그래요. 장자가 그게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하게 쓴다고 그랬죠. 있는가. 노자기수야(怒者其誰邪). 노하게 하는 건 누구인가. 아 글쎄 누구란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서 대답을 받으면 좋을 텐데 그 대답이 끝끝내 안 나와요. 참다운 군주가 있는가. 이런 식의 표현이 또 나옵니다.

▲ 박지원의 「공작관문고서(孔雀館文稿自序)」

일단 거기 표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앞에 나와 있는 무슨 어떤 것은 콧구멍 같고 어떤 것은 입 같고 어떤 것은 귀 같고 어떤 것은 가로지르는 나무 같고 어떤 것은 나무 그릇 같고 어떤 것은 절구통 같고,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이런 식의 표현

www.artnstudy.com

이 연암 박지원의 문장 속에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건 『열하일기』에도 나옵니다. 물소리가 개구리 우는 소리처럼 왈왈왈 이렇게 들리는 자는 마음이 교만해서이고 이런 식으로 줄줄줄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열하일기』는 많이 읽으니까 옛날에 그거는 따로 교과서에도 있었으니까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닌 다른 표현 중에 하나 있는 게 제가 드린 자료 6페이지에 보면 역시 유명한 문장입니다. 박지원의 「공작관문고서(孔雀館文稿自序)」가 있어요. 6페이지에 보시면 공작관문고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거기를 한 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런 글쓰기가 『장자』에 보면 아주 사소한 꼬투리 한두 개를 잡아 가지고 글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정조나 이런 쪽은 이런 걸 싫어했죠. 이런 걸 싫어해서 왜 이런 허접한 이야기를 쓰느냐. 소설 따위나 쓰고 있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바로 그 소설. 아주 하찮지만 그 하찮은 것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바로 이 18세기 지식인들 중에서 많습니다. 그게 「공작관문고서」인데 그걸 한 번 보죠.

글이란 것은 뜻을 나타내면 그만일 뿐이다. 이건 제가 일부러 뽑았는데 이건 보리 출판사에서 나온 번역이거든요. 7페이지 맨 뒤에 보면 홍기문 옮김, 이렇게 되어 있죠. 홍기문 선생은 벽초 홍명희 선생의 아드님입니다. 우리 고전 번역했는데요, 보죠.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글이란 것은 뜻을 나타내면 그만일 뿐이다. 제목을 놓고 붓을 잡은 다음 갑자기 옛말을 생각하고 억지로 고전의 사연을 찾으며 뜻을 근엄하게 꾸미고 글자마다 장중하게 만드는 것은 마치 화가를 불러서 초상을 그릴 적에 용모를 고치고 나서는 것과 같다. 눈동자는 구르지 않고 옷은 주름살이 잡히지 않아서 보통 때의 모습과 달라지고 보니 아무리 훌륭한 화가라도 진실한 모습을 그려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사진 찍으러 가면 폼 잡고 이렇게 가잖아요. 평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찍히잖아요. 그리고 다 똑같은 모습으로 찍어놨죠. 스튜디오 조명 세트가 그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다 그렇게 찍거든요. 세팅 값이 있죠. 그러면 사진 잘 찍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글을 짓는 사람인들 또한 무엇이 다르랴." 그 다음. 말은 큰 붓만 해서 맛이 아니다. 한 푼 한 리 한 호. 한 푼은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고 한 리, 한 호는 역시 저울의 가장 작은 눈금이에요. 아주 가볍다는 뜻입니다. 그런 한 호만한 일도 다 말할 수 있다. 기왓장이나 조약돌이라고 해서 내버릴 것이 무엇이냐. 기왓장, 조약돌은 『장자』에 나오는 비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나라의 역사는 도올이라는 모진 짐승의 이름을 빌려서 썼고. 이거는 이제 『맹자』에 나오는 겁니다. 『맹자』에 보면 노나라엔 『춘추』가 있고 초나라엔 『도올』이 있고 진(晉)나라엔 『승(乘)』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올은 악수, 나쁜 짐승의 이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경계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리고 사마천이나 반고와 같은 역사가도 사람을 죽이고 무덤을 파헤치는 흉악한 도적놈들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약간 행간 속에만 있고 실제로 없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약

www.artnstudy.com

간 번역을 고쳤습니다. 꺽기 표시요. 사람을 때려 죽여 땅에 파묻는 흉악한 도적놈들의 사적. 그러니까 거기 보면 추매극도, 이렇게 되어 있죠, 원문이. 추매할 때 추는 망치로 때린다는 뜻이고 매는 파묻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때려서 파묻어 버리고 딱 파묻어 버리는 극악한 도적. 그런데 본문 번역이 약간은 차이가 있어서 고쳐 놓은 거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사적을 서술하였다. 나쁜 점까지 다 서술을 해야 그게 역사다. 글 지을 때도 마찬가지다. 글을 지을 때도 오직 진실해야 할 뿐이다. 이렇게 본다면 잘 짓고 못 짓는 것은 내게 있고 헐뜯고 칭찬하는 것은 남에게 있는 것이니 마치 귀가 울고 코를 고는 것과 같다. 어린 아이가 놀고 있다가 자기 귀가 잉 하고 우니, 이명증이죠. 그만 혼자서 좋아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동무 아이에게 말했다. 너 이 소리 좀 들어 보아라. 내 귀에서 잉 하는 소리가 나는구나. 피리 부는 소리가 다 들린다. 마치 별처럼 동그랗게 들린다. 이 번역이 기가 막혀요. 동무 아이가 귀를 맞대고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아 안타까워하니 그 아이는 딱한 마음에 소리를 지르면서 남이 들어줄 수 없는 것을 한스럽게 여겼다.
일찍이 시골 사람과 같이 자는데, (코고는 소립니다) 그 사람이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았다. 휘파람을 부는 듯, 물이 끓는 듯, 탄식을 하는 듯, 천천히 숨을 쉬는 듯, 불을 부는 듯. 불 땔 때 입으로 불부는 거요. 빈 수레가 덜컥거리는 듯한데, 들이쉴 때는 톱을 켜다가 내쉴 때는 돼지처럼 식식 거렸다. 그런데 옆 사람이 잡아 일으키니 그는 불끈 골을 내면서 말했다. 내가 언제 코를 골았단 말이야. **아아 자기가 혼자만 아는 것은 남이 몰라주어서 걱정이요. (이것도 자폐고)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는 남이 일깨워줘도 마땅치 않다. (이것도 자폐다), 이거에요.**
어찌 코나 귀에만 이런 병이 있겠는가. 글을 짓는 것은 더한층 심하다. 역시 글쟁이에요. 귀가 우는 것은 병인데 그것을 몰라준다고 걱정하니 이것이야말로 병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런데 이거는 오역이더라구요. 하물며 병이 아닌 경우이겠는가. 원문을 보면 이명은 병야로되 민인지부지(閔人之不知) 하니. 이명증은 병인데 다른 사람이 굳이 알아주지 않는 것을 민(閔), 화를 낸다, 걱정을 한다, 황, 하물며, 병이 아닌 경우에랴. 병이 아니고 자기가 옳은 경우에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얼마나 화를 내고 성을 내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또 코를 고는 것은 병이 아닌데 남이 일깨어주어도 골을 내니 더군다나 병인 경우에랴. 병인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골을 낼 것이다.

이 책을 보는 사람이 자기 글 이야길 하는 겁니다. 기왓장이나 조약돌과 같이 내던지지 않는다면 화가의 붓 끝에서 흉악한 도적놈의 험수룩한 대가리가 살아나올 것이며 귀가 우는 것은 듣지 않더라도 코를 고는 것만 일깨워 준다면 이는 그의, 작가의 뜻일 것이다. 작가의 뜻을 제대로 알아차린 것일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 번역이 아주 기가 막혀요. 한두 군데 오역은 있는데 그 오역은 보니까 사소한 실수 같고 몰라서 한 거 같진 않고요. 이게 북녘에서 번역한 거기 때문에요. 북녘에서 번역했고 남쪽에서 보리 출판사에서 겨레의 고전문학 선집, 이래 가지고 나오고, 이게 십삼 권인가 이십 권인가 거기까지 나왔습니다.

www.artnstudy.com

그리고 이제 번역들은 북녘에서는 『열하일기』 같은 건 리상호 선생이 번역을 했고, 이거는 홍기문 선생이 번역을 했고, 저도 사실은 우리말을 구사할 때 이 정도. 여기 보면 한 호, 한 리니 이런 것들은 이제 원어를 그대로 썼는데 이런 부분이 거의 없어요. 고유의 단위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거의 우리말로 다 풀었고. 도적놈의 협수룩한 대가리니 하는 표현은 저는 상상도 못한 표현인데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문학하는 사람이 전통 한학 소양을 다 갖고 있으면서 번역을 하니까 아름다운 문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정도 수준으로 한 번 해보려고 『장자』를 지금 보고 있는데 어쨌든 버릇이 돼가지고요 여기서 『논어』에 나오는 내용이 「공작관문고서」하고 첫 번째 것이 글이란 것은 뜻을 나타내면 그만일 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본래 『논어』에요. 『논어』에 사달이이의(辭達而已矣). 사, 말이란 것은 달. 이이의는 뭐뭐할 뿐이다. 단정형 종결삽니다. 그냥 사달(辭達)이에요. 말은 달(達). 달은 전달(傳達)입니다. 말은 뜻만 전달하면 그만이다, 그 뜻입니다. 다른 수사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거에요. 근데 연암 수사 많죠. 이거 기본으로 깔고 하는 이야깁니다. 근데 저는 이게 명료한 표현을 일단 가장 중시하는, 전공 자체가 그렇거든요. 표현이 A는 A다, 동일률이고. A는 A 아닌 것이 아니다, 배중률이고. 이게 뭐 확실해야. 뭐뭐는 뭐다,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고, 뭐뭐는 뭐가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식으로 맨날 글을 훈련하다 보니 표현에 약해요. 그래서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그 표현은 배워 가면서 해야겠지만 어쨌든 『장자』 번역을 이런 식으로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암은 연암 스타일의 『장자』를 통해서 자기 스타일의 이야기를 했고 저는 또 이런 북녘 학자들의 번역을 보면서 제 스타일에 맞는 『장자』 번역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물론」은 나중에요 제가 좀 더 이 강좌가 여유가 있고 또 시간이 좀 있다 싶을 때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물론」 자체를 깊이 천착하면 강좌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또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피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 더 재미있다기보다도, 재미있는 이야기. 「제물론」 다음의 「양생주」 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2교시 <제물론> ② - 호접몽의 변화와 동화

▲ 장자의 호접몽 - 나비가 장주인가, 장주가 나비인가?

지난 시간에 제물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제물론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중에서 이젠 마지막으로 남은 제물론 맨 마지막 편의 6편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호접몽이죠. 장자의 이름의 주에요. 장주가 꿈에 호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호접몽. 꿈에 호접이 된 꿈인데 장주

www.artnstudy.com

가 이젠 자기가 나비가 된 건지, 나비가 장주가 된 건지를 회의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존재를 회의하는 것인데, 꿈이라는 독특한 장치를 통해서 장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보면 논증할 필요도 없고요, 꿈이라는 것이 그러잖아요. 그 당시의 위계라든지, 금기, 이런 것 다 깰 수 있는 것이 **꿈이라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장자에는 꿈을 빌려서 장주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대목이 많고, 그 첫째 꿈이 바로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육체라는 것이 나비에 비하면 대단히 무거운 존재인데, 나비가 되어서 날아다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자의 그 정신세계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물론은 한번으로 끝낸다고 했지만 사실 마지막 제물론의 여섯 편째 이야기는 꼭 해야 하기에 오늘 이 시간 앞쪽은 제물론의 말미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양생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차분히 읽어보죠. 앞에 번역을 해났습니다만 번역도 보시고 또 원문도 보시면서, 제가 원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게 습니다. 여러분은 번역논문을 보시고요.

昔者에 이렇게 시작하죠. 옛날에 머 이런 뜻인데, 이 옛 석자는 夕자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옛날에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야자에, 밤중에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저녁에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춘추자씨전」 같은 경우에 옛 석자를 밤을 뜻으로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바로 어젯밤의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장자라고 하지 않고 장주라고 그랬거든요. 장주라고 자기 이름을 직접 호칭하는 건,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입니다. 예를 들어 공자도 제자들이 일컬을 때는 자 왈, 그렇고 또 아니면 공자 왈, 이렇고, 아니면 부자 왈, 이런 식으로 전부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丘라고…직접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면 스스로 이야기 할 때 구라고 합니다. 그처럼 여기에 장주라는 표현이 직접 나오는 거로 봐서 이것은 장자가 직접 쓴 기록이고 실제로 어젯밤에 있었던 꿈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기 때문에 옛날에 있었던 장자 이야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옛 석자를 그대로 쓰게 되면 옛날에 머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장자가 스스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옛날 장자가 이런 꿈을 꾸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깐 사실 생동감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 昔者는 그냥 어젯밤에 또는 한밤중에 이런 뜻으로 보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속해서 보시고요. 네, 보겠습니다. 昔者에 어젯밤에 장주 곧 내가 夢爲胡蝶然 꿈에 爲胡蝶 호접이 되었다. 나비가 되었다. 나비가 되었으니깐 이제 날아다니는 거죠. 후후연호접야(栩栩然蝴蝶也) 후후는 이제 가볍게 날아다니는 모양입니다. 펄럭펄럭 잘도 날아다니는 호접이었는데 나비였는데 自喩適志여라. 스스로 이렇게 느꼈다. 적지는 뜻에 꼭 맞다. 즉 適은 꼭 맞다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適足 이러면 신발이 발에 꼭 맞는 거예요. 적합하다. 적당하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결국 適志니깐 뜻에 꼭 맞았다.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되었는데 **스스로 완전히 자기가 나비라고 느꼈다** 이거죠. 전혀 불편한 거 못 느끼고 완전히 나비가 된 거 이야기 합니다. 自喩適志라고 하는 게, 스스로 나비에 꼭 맞다. 내 마음에 꼭 맞더라. 그래서 不知周也. 내가 주인 것을 알지 못했다. 깨달지 못했

www.artnstudy.com

다. 전혀 내가 장주라는 인간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나비로 펄럭펄럭 가볍게 잘 날아다녔다. 그러다 俄然은 얼마 있다가, 이을고 이런 뜻입니다. 覺자로 되어있는데 요건 잠에서 깬다고 할 때에는 교로 읽습니다. 그리고 깨우치다. 잠에서 깨워나는 것이 아니라 각성을 뜻으로 쓸 때 깨우친다는 뜻으로 悟는 각오 이러죠. 이 경우는 覺으로 씁니다. 교에서 각으로 발음이 가죠. 사실은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이를테면 배울 학(學)의 본래 발음이 효에요. 배운다는 뜻으로 효는 본받는다는 뜻이고 적극적인 의미가 들어가면 學으로 되죠. 효에서 學으로 가는 구조와 교에서 覺으로 가는 구조가 같죠. 그래서 한자의 음이 어떤 식으로 변해 가는지 계열화 시킬 수 있는 실마리는 이런 데 있는데요. 어쨌든 여기서는 교입니다. 잠을 자다가 꿈에서 깨워나는 게 교에요. 그리고 살다가 한 번 더 깨우치면 覺이 되는데. 대각(大覺)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일찍 대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잠에서 깨어 나보니 나비가 되었던 게 실제가 아니고 꿈이었다는 거죠. 한 번 더 깨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장주라고 하는 거도 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비가 곧 나 장주 일 수도 있다는 애기가 다시 이야기 될 수 있는 거죠. 꿈 이야기를 통해서요. 어쨌든 꿈은 현실이 아닌데 그 현실 또한 다시 꿈 일수 있는 구조를 장자가 서사 구조 속에서 직접 이야기는 안하지만 고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교.. 깨어나는데 則蘧蘧然周也 러라, 갑자기 장주였다. 깨어나 보니 장주더라. 전혀 장주라는 것을 의심하지 못하고 나비로 그냥 펄럭펄럭 날아다녔는데 화들짝하고 깨워보니깐 갑자기 장주더라. 이런 애기입니다. 사람이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입니다. 부지해라 알 수 없구나. 도대체 알 수가 없다.
周之夢爲胡蝶與. 장주의 꿈에, 내 꿈에.. 내가.. 爲胡蝶 호접이 되었든가. 爲與할 때 與자는 의문사입니다. 胡蝶與할 때 與자가 물음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가 호접이 된 것인가? 아니면 행각 속에 있는 거죠. 胡蝶之夢爲周與. 나비가 꿈을 꿀 때에 그 나비가 지금 꿈꾸는 것이 爲周 주가 되어있는가 장주인가. 내가 지금 장주로 있는데, 이게 혹시 나비의 꿈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계속요, 周與胡蝶 則必有分矣. 장주와 호접은 반드시 구분이 있을 터인데, 차이가 있을 터인데, 이 꿈을 통해서 장주가 나비가 되고 나비가 장주가 되었다. 이거죠.

▲ 호접몽의 물화와 동화

此之謂物化. 이런 것을 일러 物化라고한다. 물화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여물동화, 꿈을 주인공이 일단은 장주인데 그 장주가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장주라는 이 인간이 호접이 되는 것입니다. **장주라는 주체 나(我)가, 그 대상 사물인 물(物) 이것과 여(與) 더불어서 동화(同化)되는 것입니다.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장주와 나비에는 분명이 차이가 있다는 하는 것이 세속인들의 가치 기준인데 저와 나, 이건 장주 나(我)고,

www.artnstudy.com

이건 저(나비)다 이거죠. 是非니 이른바, 이건 나(我)고 이건 피(彼)다. 비피무아(非彼無我)라 그런데 저가 아니면 나도 없다. 이런 얘기가 제물론 앞부분 제물론 2장 에 나왔는데요. 세속적으로 보면 아와 피의 구분이 있는 것이지만, 이 꿈을 통해서 장주는 사물과 동화되는 것입니다. **사물과 동화된다는 것은 장주를 나라고 하고 호접을 저것이라고 대상사물로 보는 주객이 동화된다, 일체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차이나, 그 차이와 차별은 분명히 다르죠. 차이를 차이로 인식하는 것이 때로 차별로 이어지기도 하고, 차이를 차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차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과 나에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때로 폭력이 되고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깐, 너도 나와 똑같이 해라. 그것 폭력적으로 요구하게 되죠. 그게 차별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반대로 차이를 차이로 인식함으로써 다른 존재로, 너와 나는 달라 이런 식으로 따돌려 그런 방식이 소외를 불러 일으켜서 차별이 되기도 합니다. **차이를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상대를 인정해주는 배려 일수도 있고 때로는 너와 나의 합일할 수 없는 존재로서, 부정해버릴 수도 그런 차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차이 자체를 이런 동화되는 경지를 통해서 완전히 없애 버리는 것이 이 꿈의 서서구조입니다.** 이 꿈의 서사구조는 장주가 뒤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우언으로 다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양생주편 마지막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종사의 편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꿈을 통해서 사람인 나(장주) 흰나비가 되는 건데, 언젠가 제가 사진을 찍다가 흰나비를 접사렌즈로 커다랗게 찍어 놓고서 어떤 사이트에 오늘 만난 장주라고 올렸는데 누가 알아들었나는 모르겠어요, 알아들은 사람이 몇 명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자가 나비가 된 것을 연상하면서 나비를 찍었는데, 그것이 장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오늘 만난 장자라 했는데, 그 리플 단 거 보니깐 알아챈 분들이 몇 분이 있더라고요. 장자를 읽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방식 꿈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동화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과 차이나 차별 극복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그 사람과 내가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거,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죠. 동화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때론 야만적인 방식으로 지명되기도 하죠. 식민정책을 이런 식으로 동화론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죠. 이를테면 식민 지배를 하는 쪽과 식민 지배를 당하는 쪽이 같은 것이라고 강조할 때 원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게 조국통일 문제로 가고 그게 또 이상하게 제국주의 논리로 연결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존재와 내가 같아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의 차별을 넘어설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마련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남미 쪽에는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지만 인종차별이 북미보다는 거의 없다고 할

www.artnstudy.com

정도 인종차별이 심각하지 않다고 그렇더라구요. 왜 그런가하고 따져보니 거기는 백인과 백인끼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아이가 까무잡잡한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고 흑인과 흑인을 결혼을 했는데도 백인아이가 태어나기도 하니 바로 자기 아이들이 자기는 까무잡잡한 피부인데 자기 아이들은 하얗고, 자기는 하얀데 자기 아이들은 까무잡잡한 피부가 나오니 한 가족 속에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간단히 그게 해소 되는데, 이를테면 그런 식을 변화를 염두 해두고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해 보면 또 다른 정치적인 논의를 아마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장자기 얘기하는 건 장자가 나비가 되고, 나비가 장자가 되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는 것입니다. 꿈이라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해서 입증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는 거죠.

▲ 장자의 만물평등론 - 존재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역시 대종사 편인데..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장자 대종사 편에 또 나와요. 나중에 또 따로 대종사편을 보겠습니다만, 이 속에 보면 자사(子祀)라는 사람, 자여(子輿)라는 사람, 그리고 자리(子犁) 또 자래(子來)라는 이 네 사람이 서로 벗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자여가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곱사병인가 봅니다. 곱사병에 걸려 가지고 몸이 뒤틀리고 배꼽이 이마 위로 올라가고 머리카락이 하늘로 치 솟고 자여의 모양이 이리저리 기형적인 모습으로 바뀌고 그렇다가 죽게 되어요. 가장 친한 벗인 자사가 가서 문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니까 자여가 탄식을 해요. 하늘이 나를 이런 모습으로 만드는구나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너는 그런 식으로 변화 하는 게 싫으냐? 자사가 묻습니다. 자여가 그게 어찌 내가 싫어하겠는가 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적어보죠. 조물주가 나를 바꾼다. 化予之左臂而爲鷄. 予죠. 予之左臂는 나의 왼쪽 팔입니다. 臂죠. 나의 왼쪽 팔뚝을 변화 시켜서 鷄를 이렇게 쓰면 큰 닭이구요, 雞를 요렇게 쓰면 새끼 닭이고 뭐 이렇습니다. 하여튼 통용해서 써요. 나의 팔뚝을 변화시켜서 닭으로 만들어 버리면 나는 기꺼이 닭이 되어서 求時也 한밤중에 때맞추어 운다. 이런 뜻입니다. 求. 추구할 것이다. 나의 化予之右臂. 나의 오른쪽 팔뚝을 변화 시켜서 化는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게 살아 있는 사람이고 이게 죽은 있는 사람입니다. 산사람이 죽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化했다. 죽었다는 이런 얘기는 死와 같다고 그랬죠, 이게 땅이고 이게 옆에 남아 있는 뼈입니다. 뼈 밑에 변화한 사람이 누워있는 건데. 숭장 풍습을 보여주는 글자이기도 하고, 사람이 죽어서 다른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하는 거 입니다. 나의 왼쪽 팔은 닭이 되었다고 치고, 나의 오른쪽 팔뚝은 탄이 됐다. 새총의 탄알이 됐다. 탄알이 되었다고 할 때 탄은 총포류, 활약류만 아니라 활살 촉도 탄이 되는 것입니다. 탄약이 되었다고 하면은 나는 鴞炙 새구이.. 새를 잡아서, 그 새구이 해먹는 것을 바랄 것이고 탄약이 되었으니깐 날아가서 새를 잡는데. 그 쏘면은.. 탄약이 되

www.artnstudy.com

어서 새의 몸에 박히는 거죠. 그래서 새를 잡으면 결국 鴞炙.. 이게 새구이입니다. 새 불고기입니다. 새 불고기 이라는 말은 안 쓰지만 새 구이를 바랄 것이고, 닭이 되면 울고 그리고 탄약이 되면 가서 그냥 새 몸뚱이에 박혀서 새 구이를 바랄 것이고. 그리고 化予之尻.尻는 꽁무니 고자예요. 꽁무니 인데 나의 꽁무니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느냐 하면은 輪자를 써요. 바퀴로 만든다고 치면, 바퀴니깐 아마 고(尻)가 궁둥이 정도 되어야 할 거에요. 둥근 넓적하니까 여기다가 수레바퀴가 수레를 헤아릴 때에는 량(輛)으로 헤아리죠. 량자가 들어간 게 수레바퀴 두개니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수레바퀴 네 개짜리도 있고 만들면 삼륜차도 있기 있는데 어쨌든 기본은 수레바퀴가 두개거든요. 수레 한대 두 대 할 때 일량, 이량. 이런 식으로 헤아리잖아요. 또 수레를 헤아리는 단위는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맹장에 나오는 乘도 있고 한데. 요것은 말 네 필이 모니까 네 마리 승자를 써서 수레 한대. 헤아리는 단위로 쓰는 것인데 어쨌든 그건 그거고 나의 둥근 엉덩이를 가져다가 둥근 수레바퀴로 만들고 또 化予之心 .나의 정신을 가져다가 말을 만들고, 以神爲馬. 말은 달리는 거죠.

정신이 말처럼 치닫는 것을 이런 식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말로 만들면 나는 그것을 탈 것이고, 予因以乘之. 말과 수레를 타고 달릴 것이고. 수레바퀴가 되면 바퀴가 되어 굴러다니고, 내 정신이 말이 되면 스스로 타고 달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멍에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시 멍에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스스로 바퀴가 되고 스스로 말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사람처럼 번거롭게 말고 수레를 연결해가지고 말과 수레를 연결하는 것을 駕라고 해서 멍에한다는 뜻으로 쓰거든요. 그런 식으로 번거로운 절차 없이 말이 되어 달리고 수레가 되어 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자기 스스로 다른 존재가 된다고 하는 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생주편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安時處順. 安時할 때 時는 태어날 때 입니다. 태어날 때를 편안히 여긴다. 편안하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 태어나기 싫어 버티지 않고요. 나 태어나기 싫어 이렇게 버티는 거는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나 죽기 싫다는 것을 얘기해요. 화라고 하는 것은 은행나무가 있다고 하면 은행나무 아닌 것에서 은행나무로 왔지. 예를 들어 은행나무가 스스로 죽지 않겠다고 발버둥치는 것이. 죽지 않겠다고, 나 죽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이 죽을 때이면서 동시에 태어날 때 입니다. 태어날 때를 편안히 여기고 태어날 때가 되면 태어나고. 處順하며 處는 원래 죽는 것입니다 순종 뭐 이러는 데요. 순종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순장과 같아요. 순장이라는 것은 죽은 사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죽은 사람의 유골이라고 그랬죠. 위에 풀이 있고 아래에 풀이 있어요. 땅을 파고 파묻은 것입니다. 순장과 순종이 같습니다. 순종은 깔아 묻는 거... 쫌 끔찍하죠. 어쨌든 죽을 때가 되어서 죽는 것이 順입니다. 죽을 때가 되어서 죽는 것을 處나 安이 같습니다. **태어날 때가 되면 태어나고 죽을 때가 되면 죽는다.** 그런 태도를 노담의 죽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양생주의 맨 마지막 부분이고 같은 내용을 방금 말씀드린, 자래

www.artnstudy.com

자해 자리 자사 네 벗 중에서 자여가 죽을 때 죽으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또 사람들이 노담의 죽음을 슬퍼할 때 노담의 벗인 어떤 진일이라는 것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변화라고 하는 게 결국 다른 사물과 내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동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염두 해두고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물론의 맨 마지막이 나비 이야기로 끝났는데요. 제물이라고 할 때 齊가 가지런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만물이 평등하다는 얘기이죠. 제물은 모든 존재, 만물 이런 뜻이죠. 만물이 가지런하다. 만물을 가지런하게 통일 시킨다. 통일시킨다는 자체가 만물을 가지런하게 파악한다는 뜻인데, 원래 齊자는 어떤 사물을 정리해놓은 모양 요게 제자입니다. 제자의 원형이고 요렇게 된 제자도 있고, 또 요렇게 해서, 요거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정돈, 만물을 가지런하게 파악하는데 장자가 동원하는 방법은 나비가 내가 되고 내가 나비가 되니깐 저절로 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나비를 무식하고 차별하면 내가 곧 나비가 될지 모르는 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깐 저절로 物化라고 하는 말을 통해 다른 사물과 동화되는 경지를 통해서 제물을 이루는 게 장자의 맨 마지막 그러니깐 제물론 맨 마지막 편에 나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www.artnstudy.com